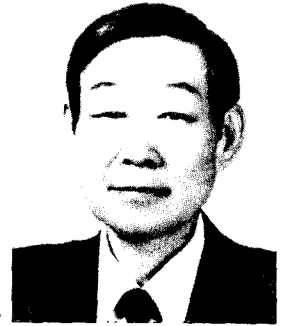


環境教育의 效果的 實施方案



朴 俊 熙

〈梨花女大·사범大學 教育學科教授〉

• 生活로서의 環境教育

매사가 다 그렇지만 교육은 특별히 다음 두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하나는 일찍 부터 시작할수록 좋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 자체를 통해서 하는 일이란 바로 그것이다. 사실이 같은 원리는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이다.

나무를 가꾸는 예를 들어 보면 묘목을 심을 때에 그 묘목에 알맞은 풍토와 위치를 잘 선정하고 그 나무가 어려서부터 잘 자랄수 있는 토양을 곱게 만들어 적당하게 땅을 파고 원칙에 따라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며 적당한 깊이로 파서 심고 적절하게 다지며 계속 알맞게, 즉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정성껏 가꾸면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된다.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리게 되면 비바람이 불어도 좀처럼 쓰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어릴때 부터 신체, 행동을 가릴 것 없이 순조롭게, 그리고 능력과 적성에 맞게 자라도록 기르고 가르치면 자라면서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이론이기도 하지만 동서 고금의 역사가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잘 자라게 하는 것은 매일 매일 그때 그때, 집에서나 밖에서나를 가릴 것 없이 어른과 더불어 어른의 모범적인 생각, 태도, 행위등을 통하여 같이 행동하며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자체를 통해서 되는 것임을 명심할 일이다. 가령 고운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사회의 모든 어

른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고운 말을 골라서 사용하고 사람을 대함에 서로 공손하고 아끼고 귀여워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태도와 행동을 해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된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공손하고 공경하고 뜻이 맞으며 겸손하고 알아 들으실 수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로 대하고 할아버지는 그 점을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잘 들어 주시는 모습을 어린 아이에게 보이고, 듣고, 느끼게 하면 된다. 고운 말을 쓰는 사람치고 거칠은 마음을 가지거나 몹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반대로 욕을 밥먹듯이 하며 아이들에게만 고운 말을 쓰라고 하면 그 아이도 심중팔구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반항적인 성격이 길러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교육이라고 해서 이같은 진리와 원리에서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 家庭·學校·社會의 一貫性 維持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용을 환경교육에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우선은 가정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학교와 사회가 함께 그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는 길만이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가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가정에서 뿌리를 잘 내려 놓으면 그만큼 큰 걱정은 없지만 학교나 사회에서도 다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방이나 마당이나 화장실, 부엌 등등을

항상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부터 갖게하는 것이다.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 하여 그것만을 의도적으로 관습을 가지게 하자고 말로 이르고 주장을 해가면서 가르치고 기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활하는 동안에 어질러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다시 깨끗이 방을 쓸고 걸레질하며, 털이개로 털며, 뜯을 깨끗이 가꾸는 생활 그 자체를 통해서 더럽고 비위생적인 것을 자연히 싫어하는 생활태도를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확실히 지저분한 것 보다는 깨끗한 것이 아무래도 좋으니 자주 깨끗이 치우는 생활은 어른과 함께 하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먹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손발을 씻는등과 같은 생활을 습관화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다같이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선 어려서 부터,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모두가 깨끗한 것을 즐기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학교가 되고, 그런 지역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설사 한두 사람이 주위를 더럽히려 해도 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며, 그런 사람이나 기관이 엉기면 지역사회가 온통 용서를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은 가정교육에서, 학교교육에서 그리고 사회교육에서 다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 多様な資料製作 및 活用

그런데 실은 그와같은 습관이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환경교육이 다 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인구가 많이 모여 살고, 바쁘게 살고 무수히 많은 공해물질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돈벌이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온통 갖가지 자료와 기회와 장소에서 즐기만을 좋아하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리잡힌 생활습관마저 뒤흔들어 놓게 되기가 쉽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습관이 지니는, 당기는 힘보다 주위의 조건이 끄는 힘이 강해지면 그리로 끌리고 기울어지기 쉬운 것은 역학적으

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의 사회는 공해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면서도 당장은 그리로 풀리기 쉬운 상황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습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가피하게 잘 잡혀져 나온 습관이 흔들리는 일이 없이 그 자리를 더욱 튼튼하게 굳히게 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것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가지 작업 및 실시에 관해서 예를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가정교육상 좋은 것

가정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것은 평소에 생활하는 습관매개인 만화, 그림, 사진, 이웃과의 청소의 협력에 의해서 깨끗해지게 되는 것을 간단하고도 알기 쉬운 것을 담은 슬라이드, 비디오 등이 좋다. 그리고 방에서 T.V를 통해서 어린이 시간 같은 때에 더러웠던 곳이 깨끗해져서 놀기도 좋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등을 역시 만화나 그밖의 간단한 드라마로 엮어서 방영하는 것도 좋다. 이때에 주의할 일은 비교적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되게 하고 소재는 계속 색다른 것이 되게 하되 방송등에서 자칫 어색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 폐단을 피하여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는데에 유의해서 제작할 일이다.

(2) 학교교육상 바람직한 것

학교라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등의 수준이 있어서 그 내용과 구성은 연령이나 학년에 알맞는 것이 되도록 하는데에 유의하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든 초등학교는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 중학교의 경우는 각 학년마다, 또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각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경우에 학교용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

① 부교재로, 또는 참고서로서의 책이다.

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초급의 경우는 글이나

말은 되도록 넣지 말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인위적으로 더럽혀진 환경을 은연중에 비교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내용이나 그림을 제마음대로 읽고, 보고 선생님의 이야기 시간이나 학습시간에 그에 대한 감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선생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때 책의 내용은 일반교과서와 같은 스타일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초급에서는 만화형식의 것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

② 패드, 슬라이드, 드라마, 비디오등과 같은 새로운 그리고 흥미있는 시청각적인 교구나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때도 물론 학교급별, 학년별로 그 수준을 달리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 유의할 일은 지극히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하여 실감이 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말고 역시 외국의 좋은 예, 또 잘못되었다고 노력해서 나아진 좋은 예 등을 함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따로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것도 처음부터 좋은 상태만을 보이기 보다는 부주의, 무관심, 비협력, 이기주의 등으로 나빠졌다가 깨닫고 나아지거나, 나아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좋은 것만 주면 저항의식과 반대로 자학성이나 자포자기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는 서로 마음먹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모두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드라마나 토론회등과 같은 모임으로 간혹 붐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 이때에도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고 강당에 모두를 모아놓고 하면 효과가 적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적당한 시간과 적당 수의 학생을 조성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④ 강연회를 교내선생님이나 사회인사나 다른 학교에서 모시고 실감나는 경험담을 중심으로 여는 것도 좋다. 물론 고등학교의 상급생쯤 되면 다소 이론이 곁들여져야 그들의 구미를 돋우게 된다는데에도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⑤ 끝으로 게시판에 재미있는 포스터나 광고같은 것을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게시하여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일도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보기 좋게 붙인다는 그 자체가 벌써 환경을 정리하고 보전하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褒賞制度 實施

사람은 잘 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 주고 널리 나타내 보여주면 좋아한다. 이 점은 아이나 어른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반대로 설사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여러 사람 앞에서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는 커녕 싫어한다. 더구나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다지 잘못하지를 았았다고 생각하는데에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게 되면 참고 있을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람을 다루고 격려하는 중점은 칭찬하고 포상을 해 주는데에 놓여야 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사람은 칭찬받기를 바라고 또 칭찬을 받으면 더욱 좋은 생각, 좋은 태도, 좋은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적절히 그 뜻을 표시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포상의 내용과 정도에 그야말로 과부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간단히 칭찬할 것을 지나치게 야단스럽게 해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 역시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또 포상은 국가적, 지방단위, 학교단위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에서, 사회단체등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한편 부득이 꾸중하고 벌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처리하는 일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

